

전자랜드가 31일까지 '전랜 산타가 됐다!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자랜드 회원이면 누구나 기간 내 1회 한정 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자랜드 공식 온라인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원 빌기' 뽑기에 참가하면 된다. 당첨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케이크 교환권, 도서 상품권 등을 준다.



세계 임원인사 트렌드는 '성과주의'

신규 임원 수 늘리고, 3040 파격 발탁

세계의 2022년 임원 인사 키워드로 '성과주의'가 뜨고 있다.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비전만으로 임원을 발탁하는 것으로, 미래 준비를 위해 3040 젊은 임원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로 주요 자리에 배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세계의 2022년 임원 인사 키워드로 '성과주의'가 뜨고 있다. 미래 준비를 위해 3040 젊은 임원을 발탁한 것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로 주요 자리에 배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업총괄 사장, 신정은 LG전자 상무, 허서홍 GS 부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SK하이닉스·LG전자·GS

나이 상관없이 능력있는 인재 발탁 SK, 신규 임원 평균연령 48.5세 그린·디지털 분야 등에 67% 포진 LG전자도 41세 최연소 상무 발탁 삼성, 인사혁신 통해 젊은 인재 중용

●40대 사장 탄생한 SK하이닉스

2일 2022년 임원 인사를 단행한 SK 그룹의 경우, 최근 3년간 인사 중 가장 큰 규모인 133명의 신규 임원을 선임했다. 2020년 109명, 2021년 103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신규 임원 중 약 67%가 첨단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등 신규 성장분야에 포진됐으며, 평균 연령은 만 48.5세다.

SK그룹은 2020년 임원인사부터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상무, 전무, 부사장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한 바 있어, 이번에 선임된 임원 모두 부사장 직급을 달게 된다. 계열사인 SK하이닉스에서는 젊은 세

대를 전폭적으로 기용하며 40대 사장, 30대 부사장이 탄생했다. 1975년생 46세인 노종원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을 사업총괄 사장으로 승진시켰고, 1982년생 39세인 이재서 전략기획담당을 부사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세대교체, 다양성, 포용성 관점에서 변화를 추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LG그룹은 11월 25일 132명의 신입 상무를 선임하는 등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132명의 신입 상무 가운데 40대가 82명으로 62%를 차지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젊은 임원들을 대거 발탁했다. 최연소 임원은 1980년생 41세인 신정은 LG전자 상무로, 차량용 5G 텔레매틱스 선행개발을 통한 신규 수주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 성과주의에 따른 발탁 가능성 커

11월 25일 2022년 임원 인사를 단행한 롯데그룹 역시 철저한 성과주의 기조에 따라 승진 임원과 신입 임원수를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렸고, 파격적 인재 영입으로 그룹의 오랜 전통인 순혈주의를 깨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 확보와 인재들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조직을 주문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의중이 읽히는 부분이다.

1일 임원 인사를 단행한 GS그룹도 신 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할 젊은 인력을 대거 승진시켰다. 전체 임원 승진 및 신규 선임자(외부영입 포함) 총 43명 중 20%가 넘는 9명이 GS의 각 사업영역에서 신사업 전략과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대표적으로 허준영(47) GS 부사장은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외

부에서 영입한 인물이다. 미래에셋 글로벌투자부장과 UBS뉴욕본사 등에서 국제적인 기업인합병을 이끈 투자전문가로, GS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법인을 이끌 예정이다.

또 GS 미래사업팀장 허서홍(44) 전무는 GS그룹 전반의 신사업 투자전략을 수립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시너지 및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서며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남이자 허태수 회장의 5촌 조카로, GS그룹 오너가 4세대.

한편 이번 주 임원 인사가 유력한 삼성전자도 성과주의에 따른 '깜짝 발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 삼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11월 29일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존 부사장과 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하고, 직급별 표준채용기간을 폐지하면서 30대 임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삼성전자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중용해 젊은 경영진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더욱 자율적으로 몰입할 수 있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지향적 조직문화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이마트 '키친 델리' 전경.

사진제공 | 이마트

이마트, 즉석조리 코너 '키친 델리' 확대 "연말 100호점 달성 계획"…크리스마스 기획전 열어

이마트가 즉석조리 코너를 새 단장한 '키친 델리'를 추가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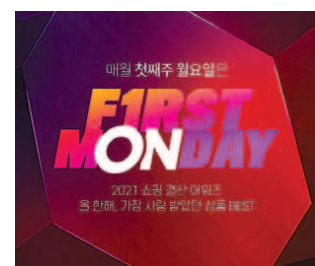
지난해 월계점 리뉴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7개 점포 즉석조리 매장을 '키친 델리'로 리브랜딩하고, 매장 인테리어와 상품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추가 리뉴얼을 통해 키친 델리 100호점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9일부터 키친 델리에서 판매하는 구이와 튀김류 상품에 간편 조리법 동영상 제공해 고객 친화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맞아 기획전도 연다. 먼저 크리스마스 케이크, 바비큐 플레이트, 눈꽃 닭갈집 등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선보인다. 또 훈제삼겹살, BBQ통닭갈비구이, 버팔로윙봉, 버터롤, 갈릭피망소스 등 휴파티 인기 메뉴를 한데 모은 '크리스마스 BBQ 플레이트'를 할인가에 판매한다. 25일까지 '크리스마스 딸기케이크', '논사람 루돌프 눈꽃도넛' 등 베이커리 상품도 한정 제공한다.

박윤오 이마트 델리 팀장은 "집에서 소규모로 즐기는 휴파티가 인기를 끌며 온 가족이 간편히 즐길 수 있는 델리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 기획을 통해 연말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롯데온, '2021 쇼핑 결산' 퍼스트먼데이



롯데온이 6~12일 '2021 쇼핑 결산'을 주제로 퍼스트먼데이(사진)를 연다. 올 한해 가장 많이 판매된 30여 개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선물이 가능한 'e쿠폰', 집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가공·냉동식품 등이 포함됐다.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6일 오전 8시부터 선착순 5만 명에게 중복 사용이 가능한 최대 20% 카드 할인 쿠폰을, 첫 구매 고객에게 최대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김은수 롯데온 마케팅팀장은 "퍼스트먼데이가 점차 인지도를 높여가며 행사 당일 매출과 구매 고객 수가 늘고 있다"며 "올해 마지막 퍼스트먼데이인 만큼 강력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고 했다.

오뚜기, 케첩과 마요네스 조합 '케요네스' 출시



오뚜기가 케첩과 마요네스를 최적 비율로 조합한 '케요네스'(사진)를 선보였다.

새콤달콤한 토마토 케첩에 고소한 마요네스를 섞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매콤한 할라피뇨를 더한 게 특징이다. 각종 스낵과 튀김류의 담핑 소스는 물론 샐러드 드레싱, 샌드위치 소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마요네스를 베이스로 하는 소스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조합하는 소스로 케첩을 꼽은 점에 착안해 두 소스를 섞은 '케요네스'를 개발했다"며 "1971년 '오뚜기 토마토 케첩', 이듬해 '오뚜기 마요네스'를 출시한 이후 줄곧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소스 시장을 선도해온 오뚜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두 소스의 황금비율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고속도로 전기·수소차 충전기 내년 말까지 1000기 확충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친환경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은 지난해 70만 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87만 2351명으로 늘어났으며, 연말까지는 약 1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늘어난 충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수소 충전소 등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435기가 운영 중이었는데 올해 대폭 확충돼 연말까지 730기가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도 추가로 300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는 현재 12기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43기로 세 배 이상 늘어나고, 2023년에는 52기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편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을 점차 늘려 2025년을 기점으로 가로등, 터널 조명 등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초과 달성하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104MW가 운영 중이며,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까지 발전시설 76MW를 추가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최태원 SK회장, 'EQT파트너스' 은슨 회장과 ESG 투자 논의

그린에너지·헬스케어 등 투자 협력 최 회장, SK의 ESG 경영활동 소개 은슨 회장 "어떤 분야든 협업할 것"



최태원 SK 회장(오른쪽)이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스웨덴 EQT파트너스 콘니 은슨 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

최태원 SK회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스웨덴 발렌베리가 만든 투자전문기업 총수를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5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EQT파트너스 콘니 은슨 회장을 만나 그린에너지, 헬스케어 등 미래 유망분야 투자 관련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EQT파트너스는 일렉트로룩스(가전), 아스트라제네카(제약), 스토라엔소(제지) 등 유수의 기업을 소유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세운 투자전문 기업이다. 2019년 스웨덴 스톡홀름 증시에 상장되었으며 시가총액 60조 원, 운용자산 규모만 90조 원에 달한다.

발렌베리 가문은 특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지배구조, 배당금 사회환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회동에서 최 회장은 SK의 ▲탄소감축 노력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동시 추구 ▲지배구조 혁신 등을 소

개했으며, 은슨 회장은 SK의 선진적 경영활동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한국은 특히 수소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SK역시 수소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슨 회장은 "한국 수소 비즈니스 발전 속도가 유럽에 비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을 표한 뒤, "SK그룹이 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협업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지향적 사업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은슨 회장은 SK그룹의

유럽 시장 진출 현황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배터리를 부분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은슨 회장은 "유럽에서 SK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SK가 아시아에서 기여할 수 있다면 EQT는 유럽에서 SK에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 관계사들은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하는 등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SK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 회장을 잇달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